**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자. /월리스 해플린 2세**

****

†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자.

몇 년 전, 성전을 건축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공사현장을 들러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새로 짓는 예배당의 규모는 실로 엄청났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커다란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든 좌석들이 가득 찼고, 심지어 예배당 복도에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적지 않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통찰력에도 한계가 있다.

아마 우리 인간이 너무 작은 탓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 주는 동시에,

모든 것을 인간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만든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뜻이다.

이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바라고 기뻐하며 사모해야 할 복된 은사이다.

몇 해 전, 나는 젊은 사역자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는 이미 수천 명을 넘고 있었다.

그는 소위 '성공한 목회자'였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만 그에게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하고 특별한 것들을 말씀하시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랍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신중한 자세로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매 순간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월리스 해플린 2세가 지은 “하나님의 일곱 가지 목소리” 중에서...)